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과 장 정대순	042-481-8197
	다자기구팀	사무관 허원석	042-481-8555
		2020년 4월 7일(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WIPO와 16개 주요 특허청장 간 원격회의 (세계지식재산기구)

- 『한국형 코로나19 방역모델』 소개 및 국제공조 제안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6일(월) 오후 9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유럽·일본·인도 등 주요 16개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 (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원격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원격회의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들 중의 하나였지만,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 (Drive Through), 빠르게 정확한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선제적인 개발·생산 및 보급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과 확진자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 성있게 추진하여 현재는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아울러, 박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크스루 방식의 진료기법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 또는 기술들이 특허로 출 원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박 청장은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과 같은 각국 특허청의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분석결과를 WIPO에 제공하여 이를 전 세계 연구기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도 동 제안의 의의와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연구자와 전문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3,5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를 △ 방역/방호 △ 치료/백신 △ 검사/진단 △ 폐기물 처리 △ 기타 등 5개 대분류, 18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사이트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 각국별로 제출기한을 상이하게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예: 출원인 혼란) 해결방안 △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원료 등의 유예기간 설정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WIPO와 16개 특허청장들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으나, 한국형 방역모델을 신속하게 구축·운영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원격회의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사무관 허원석(☎ 042-481-85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원격회의 사진

○ 사진내용

박원주 특허청장은 4월 6일(월) 오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유럽·일본·인도 등 주요 16개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특별원격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중인 박원주 특허청장>



참 고 원격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이름
1	한국	Mr. Park Wonjoo
2	호주	Mr. Michael Schwager
3	브라질	Mr. Claudio Vilar Furtado
4	캐나다	Ms. Johanne Belisle
5	중국	Mr. SHEN Changyu
6	프랑스	Mr. Pascal Faure
7	독일	Mr. Christian Wichard
8	인도	Mr. Om Prakash Gupta
9	일본	Mr. Akira Matsunaga
10	러시아	Mr. Grigory Ivliev
11	싱가포르	Mr. Daren Tang
12	스위스	Ms. Catherine Chammatin
13	영국	Mr. Tim Moss
14	미국	Mr. Andrei Iancu
15	EUIPO	Mr. Christian Archambeau
16	EPO	Mr. Antonio Campinos
17	WIPO	Dr. Francis Gurry